

철도소음 측정망

- 도심을 통과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주행소음, 궤도마찰소음, 기관소음, 충격음 등 철도소음도의 실태와 특성조사로 정온한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자료로 제공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년 11월 ~ 12월 (연 1회)
- 조사지점 : 4개 지점
 - 경부선(가야, 덕포), 동해남부선(안락, 청강리)

2. 조사방법

- 지점별 주간야간(11:00, 18:00, 22:00)시간대별 1시간 등가소음도[Leq(1hr) dB(A)] 측정
- 지점별 평가 및 열차종류별 통과대수와 지속시간, 최고소음도, 배경소음도, 주파수특성 등

3. 조사결과

- 현행 철도소음 관리기준[주거지역 : 주간 70 dB(A) 야간 60 dB(A)]과 비교시 주간은 전지점에서 만족하였으나 야간의 경우, 청강리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경부선 구간인 가야2동지점 및 덕포2동지점의 철도소음도는 연도별 조사에 따른 열차통과대수에 따라 다소 증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해남부선 구간은 차후 고가이설 및 복선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복선 전철 통과 차량 대수의 증가 등의 변동 요인에 의해 소음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노선별 소음도 조사결과

(단위:Leq(1hr) dB(A))

지역		2015년		2014년		2013년		관리기준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경부선	가야2동	66	66	66	65	67	68	70	60
	덕포2동	65	62	69	65	65	65		
동해남부선	안락2동	61	65	67	66	68	68		
	청강리	60	59	63	57	67	67		

4. 활용방안

-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소음도의 실태와 특성조사로 정온한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

5. 기대효과

- 지점별 철도소음 특성을 파악하여 철도 소음 발생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를 통한 정온한 철도 환경 조성